서울시 건축물 정보의 정비방안

1. 건축물 정보 정비의 필요성
2. 건축물 정보의 현황
3. 건축물 정보 활용상의 문제점
4. 건축물 정보 정비방안
5. 정책적 시사점

1. 건축물 정보 정비의 필요성

○ 건축물 관련 행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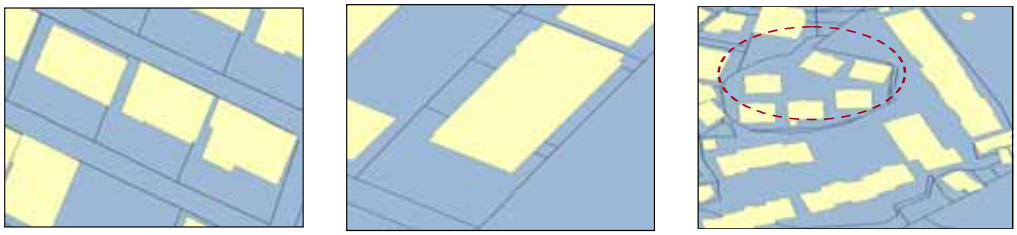
- 건축물 정보는 토지 및 인구에 대한 정보와 함께 도시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로서, 서울시 여러 부서의 다양한 업무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보임.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자료는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기부자료, 위법건축물자료 등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건축물정보의 근간이 되기는 하나 실제 사용시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개별 대장자료들의 한계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에 적법한 건물에 대한 자료만이 대장으로 만들어지고 있어 완전한 자료가 아니며, 전산화된 건축물대장 정보는 건축허가 이후 용도변경 등에 대한 갱신 미흡, 정보의 누락, 멸실건물에 대한 말소대장의 존재 등으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임.
-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대한 보조자료로서 과세대장, 위법건축물자료, 등기부자료 등이 병행되어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과세대장은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현재의 용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비과세부분에 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법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대장과 동일물건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혼돈을 줄 수 있는 등 개별대장의 활용상에 한계가 있음.

○ 수치지형도의 건물도형과 대장자료 연계의 한계

- 건축물정보는 지리정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1:1,000 수치지형도와 연계되어 각종 지리정보구축사업의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대장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뿐 아니라 수치지형도와 연계시 1:1로 대응되지 않음으로써 활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건물도형은 편집지적도의 지번을 이용하고, 대장들의 고유번호는 지번을 활용하나, 건물과 지번간의 관계는 1:1로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지형도의 건물도형과 건물에 대한 특성을 기술하는 각종 대장 자료들 간에 미연계되는 경우가 발생함.



<건물과 필지 1:1대응> <여러 필지에 한 개의 건물> <한 필지에 여러 개의 건물>

〔그림 1〕 필지와 건물간 관계유형

2. 건축물 정보의 현황

○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과/주택과에서 사용승인한 후 지적과(시민봉사실)에서 작성 및 발급하는 공부임.
- 현재 서울시에서는 대장 전산화 사업과 건축행정 정보화에 따라 전산화된 건축물대장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물 대장이 존재함.

○ 건축물 과세대장

- 건축물 과세대장은 비과세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가액(과세시가 표준액)을 부과하기 위해 서면 혹은 직접 조사하여 세무과에서 작성하는 자료임.
-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업무를 통해 주택에 대한 자료를 전체 정비한 바 있으며, 상가와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위법건축물 자료

- 위법건축물은 행정절차 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추후 허가받을 수 없는 설계변경을 하였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하는 등 허가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의 건축물을 의미함. 무허가건축물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의 행정절차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주 본인 임의로 축조한 건축물을 말함.
- 서울시 건축과에서 항공사진을 판독하거나 민원신고에 의한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무허가 및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이들을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음.

○ 건축물 도형자료

- 건물의 위치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1:1000 수치지형도를 근간으로 새주소 부여사업과 서울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 수치지형도의 건물자료는 적법성여부, 과세여부를 떠나 현재 존재하는 모든 건물의 형상이 시각화되어 나타남. 반면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만 대장으로 존재하여 건물도형과 건축물대장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고 있음.
- 사례지역[1]에서 건물도형과 건축물대장의 연계율을 조사해 보면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약 82~92%, 건축물도형 기준으로 약 78~88% 연계되고 있음.

<표 1> 건축물 도형과 건축물대장의 연계

건축물도형과 건축물대장 연계율	종로구 창신동	강남구 역삼동	서대문구 창천동
건축물대장 기준 연계율	82.1%	92.4%	86.5%
건물도형 기준 연계율	78%	88.3%	86.2%

1) 건축물관련 대장자료들의 정확도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였음. 현장조사는 종로구 창신동, 강남구 역삼동, 서대문구 창천동의 일부지역에 대해 수행함.

〔그림 2〕 건축물대장과 미연계된 건물[2](창신동)

〔그림 3〕 건축물대장과 미연계된 건물(창천동)

〔그림 4〕 건축물대장과 미연계된 건물(역삼동)

3. 건축물 정보 활용상의 문제점

○ 개별 대장자료들의 정확도 미흡

- 건축물대장의 경우 주요항목의 누락[3](<표 1> 참조), 건축물대장 테이블간 불일치, 건축물대장 자료 자체의 낮은 정확도[4](<표 2>, (그림 5), (그림 6) 참조) 등의 문제점과 더불어 건축물대장 관리상의 문제점, 사용승인서를 기반으로 건축물대장을 정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2) 건물도형 기준으로 산정

3) 건축물대장은 총괄표제부, 동별 현황, 층별 현황자료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동별 현황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음. 동별 현황자료의 누락률은 지역에 따라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동용적률, 동건폐율 등에서는 6~13% 내외, 동높이, 동착공일자등은 9~17% 정도 자료가 누락되어 있음.

4) 건축물도형과 연계된 건축물대장 정보를 기반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층수가 상이한 경우는 10% 내외, 용도의 경우는 50%를 상회하고 있음.

- 과세대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의 경우보다 용도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5]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며 비과세부분은 누락되어 있음.
- 개별주택특성조사자료도 최근에 조사된 자료이기는 하나 현장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정확도에 한계[6]가 있음.
- 위법건축물대장에도 일부 건축물 대장과 동일물건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치지형도의 건물도 현시성의 문제가 있음.

<표 1> 건축물대장의 주요 항목별 누락률('92년도 이후)

테이블	주요항목	종로구		강남구		서대문구	
		누락수	비율(%)	누락수	비율(%)	누락수	비율(%)
동별 개요	동주용도코드	90	1.6	33	0.3	44	0.5
	동기타용도	12	0.2	33	0.3	-	0.0
	동구조코드	31	0.6	10	0.1	29	0.4
	동구조상세	9	0.2	10	0.1	1	0.0
	동지상층수	56	1.0	25	0.3	18	0.2
	동지하층수	30	0.5	16	0.2	67	0.8
	동용적률	693	12.5	594	6.0	1,103	13.8
	동건폐율	691	12.4	584	5.9	1,101	13.8
	동연면적	2	0.0	16	0.2	1	0.0
	동용적률산정시연면적	3,195	57.5	5,943	59.9	5,393	67.4
	동건축면적	514	9.2	573	5.8	811	10.1
	동대지면적	334	6.0	540	5.4	1,091	13.6
	동허가일자	357	6.4	415	4.2	172	2.1
	동높이	676	12.2	898	9.1	938	11.7
	동지붕코드	355	6.4	186	1.9	206	2.6
	동지붕명	57	1.0	187	1.9	27	0.3
	동착공일자	981	17.6	1,223	12.3	1,096	13.7
전체 레코드 수		5,560		9,920		8,003	

5) 건축물도형과 연계되는 과세대장을 기반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한 결과 용도의 일치성은 약 82%로 나타났음.

6) 개별주택특성조사자료와 현장조사내용의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용도정보는 76~93%, 층정보는 89~97%의 일치도를 보여주고 있어 개별주택특성조사자료가 가장 최근에 조사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음.

<표 2> 사례지역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층수 일치성

구분	건물도형과 연계		층수 일치도		용도 일치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종로구 창신동 일부	198	87.2	176	88.9	79	39.9
강남구 역삼동 일부	217	89	204	94	142	65.4
서대문구 창천동 일부	348	97.5	323	92.8	174	50

〔그림 5〕 층정보 정확도(창신동)

〔그림 6〕 용도정보 정확도(창신동)

○ 건축물 정보간 연계 문제점

- 건축물 정보를 연계하는 공통 고유번호가 없음. 공통 고유번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건물도형, 건축물대장, 과세대장의 각 건물에 대한 행정구역, 지번, 물건명의 정보가 필요하나, 이들 정보가 누락되거나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 과세자료와 건축물대장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용도, 구조와 같은 항목도 행정자료별로 용도·구조 분류체계가 다르며, 법원행정처의 건물등기부등본의 용도·구조·지붕 등의 정보분류 체계도 다름.

○ 건축물 정보간의 불일치 문제

-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무허가건축물대장의 공통된 항목들 중에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있음. 건축물대장의 연면적과 개별주택특성조사자료의 연면적이 다르게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그 예이며, 이런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근거는 건축물대장이기는 하나 과세의 근

거가 되는 자료는 개별주택특성조사자료임. 자료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개별주택특성조사자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범용적으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개별주택특성조사자료 내의 대장상 자료와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건축물 정보간 불일치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면적 자료의 일치도가 75%로 가장 높으며, 용적률 자료의 일치도는 13.5%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표 3> 대장면적과 실제 면적간의 차이 분석

구분	Null		Null이 아닌 값 (비교기준)				
			일치	10%미만	20%미만	50%미만	50%이상
대장대지면적*	1,525	436	150	156	65	57	3
실제대지면적**	0		34.4%	35.8%	14.9%	13.1%	0.7%
건축면적*	1,631	436	199	83	28	9	6
실제건축면적**	0		45.6%	19.0%	6.4%	2.1%	1.4%
연면적*	339	1,617	1214	238	21	22	122
실제연면적**	0		75.1%	14.7%	1.3%	1.4%	7.5%
건폐율*	1,631	325	64	128	79	45	9
실제건폐율**	0		19.7%	39.4%	24.3%	13.8%	2.8%
용적률*	1,631	325	44	54	43	141	43
실제용적률**	0		13.5%	16.6%	13.2%	43.4%	13.2%

※ 창신동 개별주택특성조사자료 : 총 1,956 대상
* 대장자료 : 일반건축물대장에 표시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을 조사하여 기재함.
** 실제자료 : 건축물대장상의 자료와 실제자료 가 상이한 경우는 실제 자료를 기재함.

○ 건축물 정보에 대한 총체적 현황 파악이 어려움.

- 건축물대장은 건축과에서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장이 작성됨. 인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개축과 용도변경과 같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도중에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변경분을 신고하여 건축물대장에 갱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과세대장 및 무허가 건축물대장에 따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무허가건축물대장 등을 모두 연계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2004년 서울시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수치지형도의 건물수는 약 824,465동, 건축물대장은 722,890동, 과세대장은 655,761동으로 수치지형도의 건물을 기준으로 볼 때 건축물 대장은 약 87.7%, 과세대장은 약 79.5%만이 대장으로 존재함.

<표 4> 서울시 대장별 건축물 수 비교

구 분	건물도형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건축물 수	비율	건축물 수	비율	건축물 수	비율
종로구	34,907	4.2	30,912	4.3	26,679	4.1
중구	24,363	3.0	26,282	3.6	20,567	3.1
용산구	32,076	3.9	28,825	4.0	24,965	3.8
성동구	30,573	3.7	26,144	3.6	22,719	3.5
광진구	29,427	3.6	27,635	3.8	25,965	4.0
동대문구	45,380	5.5	37,672	5.2	33,769	5.1
중랑구	34,447	4.2	31,782	4.4	30,218	4.6
성북구	55,482	6.7	48,024	6.6	42,734	6.5
강북구	37,185	4.5	32,585	4.5	31,184	4.8
도봉구	21,548	2.6	16,922	2.3	16,328	2.5
노원구	21,062	2.6	14,828	2.1	13,392	2.0
은평구	50,069	6.1	45,563	6.3	40,293	6.1
서대문구	37,596	4.6	32,553	4.5	30,468	4.6
마포구	38,402	4.7	34,742	4.8	31,880	4.9
양천구	22,723	2.8	21,562	3.0	20,135	3.1
강서구	30,890	3.7	28,515	3.9	26,198	4.0
구로구	31,893	3.9	25,723	3.6	23,304	3.6
금천구	20,206	2.5	17,583	2.4	15,497	2.4
영등포구	40,630	4.9	34,538	4.8	29,555	4.5
동작구	36,168	4.4	32,368	4.5	28,662	4.4
관악구	41,579	5.0	35,663	4.9	34,033	5.2
서초구	25,430	3.1	19,873	2.7	18,094	2.8
강남구	28,263	3.4	23,792	3.3	22,700	3.5
송파구	29,266	3.5	25,650	3.5	24,471	3.7
강동구	24,900	3.0	23,154	3.2	21,951	3.3
총합계	824,465	100	722,890	100	655,761	100

* 2004년 서울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자료 기준

4. 건축물 정보의 정비방안

○ 건축물 정보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건물에 대한 정보는 건축 승인 당시의 정보뿐 아니라 현재 사용되는 현황과 소유권 정보가 파악될 수 있어야 함.
- 현재 업무부서의 업무분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차원에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현재 대장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 종류의 대장을 완벽하게 정비하기 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건축물 정보의 정비시 경영정보시스템(MIS) 활용뿐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GIS) 활용까지도 고려하도록 함.

○ 건축물의 핵심정보 항목 선정

- 건축물 정보 정비시 우선해야 할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도시계획, 방재, 부동산, 시/구청 업무 등에서 활용되는 주요 항목을 조사한 결과 건축물 정보로서 활용도가 높은 항목은 용도, 연면적, 사용승인일자, 구조, 층수, 용적률, 건폐율, 건축면적(바닥면적), 대지면적, 높이, 소유자현황, 대지위치 등으로 분석됨.

○ 건축물에 대한 총체적 현황정보 제공 개선

-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정보는 서울시의 각 업무 특성별로 작성되어 실존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어느 한 대장을 중심으로 모든 정보를 갱신하도록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각 대장들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서울시의 건축물 정보의 핵심정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대장들 별로 정보를 취합하여 전체정보가 될 수 있는 건축물 정보 통합 DB를 만들도록 함.

○ 건축물 정보 간 연계 개선

- 건축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주요 대장들 사용 시 가장 큰 문제는 연계할 수 있는 고유값이 없다는 사실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아래의 2가지 대안을 제시함.
- 단기적으로는 현재 건물, 토지, 등기 연계자료를 기반으로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대장,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수치지형도 건물에 대한 작업지침을 작성함.

-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새주소부여사업의 결과 모든 건물에는 고유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국회의원 의원입법으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법제내용에는 주민등록을 비롯한 모든 공부상의 주소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건물과 관련된 공부 및 수치지형도의 건물에는 도로명에 따른 건물번호를 부여하도록 함.
- 대장들을 연계·통합 활용하는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관련 항목의 정보들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임. 특히 용도, 구조 등은 건축물 대장, 과세대장, 등기부자료 등에서 사용하는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용도·구조 등에 대한 표준체계 작성이 필요함.

○ 건축물 정보들 간의 자료 불일치 문제 개선

- 건축물 정보 가운데 타부서에서의 활용이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핵심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키값으로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기부자료, 무허가건물관리대장, 그리고 수치지형도의 건물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대장별 정보를 기록하여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각 항목별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 각 자료원별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함.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대장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대장자료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추후 이러한 정보들을 차츰 일치시키도록 하는 기틀이 될 수 있음.

○ 건축물대장의 정확도 향상

- 대장별로 정확도를 높이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이것은 현장조사 등을 통한 실제상황과의 일치문제도 있지만 행정업무 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도 매우 필요함.
- 건축행정업무 프로세스 상에서는 전산카드와 수기카드 이중관리 문제 개선, 멸실정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직권 및 민원인에 의해 기재되는 건축물대장의 확인절차 확립, 그리고 타과에서 변동되는 사항을 피드백하는 업무를 '건축행정사무처리지침'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총체적 현장조사를 통한 자료 보완

- 현재 건축물대장은 1992년 이후 만들어진 사용승인서를 기준으로 건축물 정보 정비사업이 추진된 상황이며, 과세대장의 경우 2005년 개별주택가격조사를 통해 주택용도에 대해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을 갱신한 실정임. 현재로는 과세대장의 개별주택가격조사에도 한계가 있으며, 사용승인서를 기반으로 한 건축물대장 정비도 정확도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총체적인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실제상황과 정보를 일치시키고, 대장들 간의 정보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한번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한 일치작업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물건별 고유번호의 생성, 연계 분석할 수 있는 표준체계 작성, 행정업무프로세스의 개선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종합요약: 건축물 정보의 정비를 위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

- 건축물 물건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작업
- 건축물 용도, 구조 등에 대한 표준분류체계 작성 및 기존대장의 보완작업
- 건축물 핵심정보에 대한 통합DB 구축(건축물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메타데이터, DB 구축)
- 행정업무프로세스 상의 개선(건축행정, 세무행정 등)
- 총체적 현장조사

5. 정책적 시사점

○ 건축물 정보의 정비와 공동 활용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기 추진 필요

- 서울시 건축물정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부서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이지만, 도시관리업무가 과학화되고, 미래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자료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물대장 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음. 그러나 건축물 대장만을 보완하여 건축물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건축물관련 대장 정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각 대장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서울시의 건축물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체계 구축을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건축물 정보가 공동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사업들이 조기 추진되어야 함.
  - 건축물정보 통합활용을 위해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특별팀(Task Force) 구성: 건축물 정보는 각 부서별 업무영역 문제로 한 부서에서 전담하여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서울시 전사적 차원에서 건축물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각 부서간 역할분담과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건축물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 건물과 관련된 행정자료들 간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고유번호 부여작업 추진
- 통합 활용을 위한 표준분류체계 작업 추진

○ 행정업무 프로세스 상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작업 필요

- 현실적으로 각 행정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현실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자료의 한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음.
- 개략적으로 전산카드와 수기카드 이중관리 개선, 멸실정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직권 및 민원인에 의해 기재되는 건축물대장의 확인절차 확립, 타과에서 변동되는 사항을 건축물대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타과 업무 등을 고려한 '건축행정사무처리지침' 작성 등을 제안하였지만 각각의 업무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이에 대한 개선작업이 필요함.

○ 서울시 핵심정보별 공동 활용체계에 대한 전반적 연구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분야에 대한 정보의 한계를 분석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틀마련에 대한 것을 제안하였음.
- 정보의 중요성은 건축물분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님. 행정업무시 인구, 토지, 건물, 세무사항이 가장 핵심이 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정의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도 건축물분야와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현재 정보자원의 통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 EA) 기본구상과 이에 따른 정보자원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이 가운데 특히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해야 한다는 큰 그림은 있지만 개별적이고 상세한 그림이 부족한 실정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축물분야의 데이터에 대한 그림은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그리고 있는 EA 프레임 중 16개 데이터 참조 모델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분석과 실질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강영옥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291
ykang@sdi.re.kr